

가족의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Rituals on Family Strengths

배재현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Jae-Hyun Bae(cinespac@tsu.ac.kr)

요약

본 연구는 가족의례의 종류에 따른 주요활동과 갈등요인들을 확인하고, 가족의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216명에게 설문조사하였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MANOVA,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식사의례의 주요활동은 '집에서 직접요리'가 가장 많았고, 갈등요인은 '일이 너무 바빠서'가 가장 많았다. 가족주말여가의례의 주요활동은 '근교나들이', 갈등요인은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서'가 제일 많았다. 가족생일의례의 주요활동은 '케익 준비하기', 갈등요인은 '내 생일을 가족이 잊어버려서'가 제일 많았다. 결혼기념일의례의 주요활동은 여성의 경우 '외식하기', 남성의 경우 '꽃이나 선물주기', 갈등요인은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 남성의 경우 '내가 원하는 축하방식이 아니어서'가 제일 많았다. 명절의례의 갈등요인은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남성의 경우 '친척들과의 인간관계 문제'가 제일 많았다. 둘째, 연령에 따라 가족의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의례는 가족건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가족의례 | 가족건강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examine the tendency in what kind of activities and difficulties are carried out as family rituals. Second,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rituals on family strengths. To accomplish study purpose, 216 married women/men were asked to fill out the survey questionnaires. For analysis of data, SPSS Win program was used to perform Frequency Analysis, M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In the dinner rituals, it turned out that a main activity was 'serving homemade food' and a majority of subjects had a difficult time establishing a regular ritual due to 'their busy schedule at work'. In the weekend leisure rituals, a main activity was 'paying a visit to suburbs' and a main difficulty was 'lack of mutually available time for all family members'. In the birthday rituals, a main activity was 'preparing a birthday cake' and a main difficulty was 'because family members forget their birthday'. In the wedding anniversary rituals, women's main activity was 'eating out' and men's main activity was 'give a partner to a flower or gift', and a main difficulty was 'because family members forget their birthday' and 'because it was not a wanted celebration'. Finally, in the traditional rituals, women's main difficulty was 'partner doesn't understand my difficulties' and men's main difficulty was 'trouble human relationships with relatives'. (2)The family ritua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 (3)'Closeness of family members', 'task performance and problem solving skills' and 'sharing a value system of family members' were affected by the family rituals.

■ keyword : | Family Ritual | Family Strength |

I.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압박감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의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성원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 이런 의미에서 가족의 관계적, 기능적인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가족의 위기와 변화, 스트레스원으로부터 가족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가족건강성[2]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구성원간의 자아실현을 돕고 개별성을 존중하며 가족간 유대와 긍정적인 정서함양을 위한 시간을 공유하고, 가족 외적으로도 존경과 신뢰로 협력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맺는다[3]. 또한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방적 의사소통의 가족관계, 가족역할 공유, 지역사회와의 관계, 건전한 가정생활문화 등을 나열하면서 기본토대는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및 경제적 안정임을 강조하고 있다[4]. 어떤 가족이든지 처음부터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가족간의 활동이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가족의례활동이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5] 9세에서 24세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 중 37.5%만이 '매일 부모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족원들간의 일상적인 의례 중 하나인 저녁식사의례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학업과 관련된 시간부족, 부모의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부족 등은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가족간에 소소한 일상들은 가족원들의 결속을 이끌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과 함께 도움요청도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부들은 결혼생활기간동안 야기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부부만의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찾고, 이를 그들 고유의 문화로 만들어간다[6].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진 가족활동은 그 사회와 가족의 문화와 가치를 다음세대

에까지 전달되게 하고[7], 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때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례 참여를 통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며 가족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7]. 하지만 이러한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원들이 함께 하는 의례활동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의례의 주요활동과 갈등요인들을 비교하고, 가족의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가족건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족의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기혼남성과 여성의 가족의례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례,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가족의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의례

Doherty[8]는 가족의례를 각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반복적이고 공동으로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길표[9]는 가족의례를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의 과정중인 출산, 생일,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을 총칭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의 차이는 가족의례의 형식과 종류, 그 내용 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 강조된 가족의례의 방식은 지금과는 조금 상이하다. 시대적 변화와 관련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10]. 첫째,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문화적 전통으로서 세대 간 전달하는 방식인데,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가 여기에 속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각 가족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가족만의 의례를 창출하는 방식이

다[11].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과거 유교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전자를, 현대사회에서는 개별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의례들을 창출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12] 후자의 가족의례 방식을 더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가족의례 종류를 살펴보면, Wolin과 Bennett[13]은 패턴화된 상호작용과 가족전통의례, 가족축하의식으로 가족의례를 분류하였다. 패턴화된 상호작용은 가장 빈번하지만 계획적인 의도는 낮은 의례로 취침준비활동, 식사활동, 주말여가활동 등에 해당되고, 가족전통의례는 개별 가족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의례로 생일이나 기념일행사 등에 해당되며, 가족축하의식은 결혼식, 종교활동 등과 같은 문화적 행사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Fiese와 Kline[14]는 가족의례를 저녁식사, 주말, 휴가, 연중의식, 종교의식, 특별의식, 문화적, 민족적 전통의식으로 분류하였고, Leon과 Jacobvitz[15]는 일상적 가족 상호작용, 가족전통, 생애주기 사건에 대한 특별한 의식, 특별한 문화적 민족적 전통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Doherty[8]는 가족의례를 결속의례와 애정의례, 지역사회의례로 구분하였다.

가족의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의례는 그 사회와 가족의 문화와 가치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하고, 가족의례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유대가 강화되며 가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치유와 가족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가족의 다음 단계로의 전이를 알게 해준다[7].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관련된 가족의례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16], 남성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은 가족중심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17]도 있다. 가족의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전 과정에 아내의 참여는 남편의 참여보다 두드러질 뿐 아니라 휴가, 명절, 여가시에도 식사준비를 한다거나 다른 가족들을 챙겨야 하기에 정작 자신은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기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역할이 가족의례후 느끼는 성취감과 유능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8].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서구화된 가정의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19], 20대와 60대 이상이 가족여가를 많이 한

다는 연구[20]도 있어 연령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지향적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21]와 교육체험지향, 취미지향, 사회친목지향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22]가 있다. 그리고 자녀가 어릴수록 교육체험과 가정지향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22]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여가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23]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서구화된 가족의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19], 교육체험지향활동, 사회친목지향활동, 가정지향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22]가 있다. 이들 연구는 연구자의 선택한 가족의례의 종류나 유형이 상이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성과 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현대가족의 가족의례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가족의례의 종류로서 가족식사의례, 가족주말여가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생일의례, 결혼기념일의례, 명절의례의 6가지로 구성하였다.

2. 가족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가 아니라 가족의 기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한다[24]. 또한 가족의 건강성은 개인과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더욱 강조한다[24]. 권승숙[25]은 건강한 가족을 강한가족이라 정의하면서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성원간에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북돋우는 가족으로 정의하였고 Bloom[26]은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외부상황을 통제조정하면서 가족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가족을 기능적 가족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영주[27]는 건강한 가족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상호 원만하고 기능적으로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가족건강성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건강한 가족은 가족 간 지지와 격려, 성숙한 가족관계, 헌신, 공감, 감사와 애정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의사소통, 종교적 행복, 스트레스 대처능력, 질적 시간공유 등의 특성을 지니고 가족 내부적인 관계에서도 응집성과 적응력 및 결속력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28].

이러한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은주와 유영주[29]는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의 4가지 가족건강성의 특성을 구성하였다. 첫째, 가족원간의 유대는 다른 가족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밀감과 애정, 관심 등으로 유대를 돈독히 하는 가족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30]. 둘째,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다른 가족원들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경청 및 갈등,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31]. 셋째,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은 다른 가족원들과 문제나 위기상황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그 위기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32]. 넷째,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는 다른 가족원들과 건강한 가치관, 신념을 공유하고 가족의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가족의 가치관이나 규율 또한 분명한 것이다[32].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관련된 가족건강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33][34]와 함께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35][36]도 있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다는 연구[37], 자녀수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38],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연구[34]와 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39]도 있다. 또한 소득이 증류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연구[40]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다는 연구[1][35]도 있다.

3. 가족의례와 가족건강성의 관계

가족의례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들이 의례 참여를 통해 느끼는 느낌이나 의미들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의례 자체는 하나의 드러나는 행동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다양한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41]. 하나의 의례참여가 각 가족이나 가족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가족의례 자체는 그 가족을 좀 더 건강한 가족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민이[23]는 가족여가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체험지향활동을 할수록 가족적응성, 응집성, 부와의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고 취미지향활동을 할수록 모와의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친목지향활동을 할수록 가족응집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소영[22]은 교육체험지향적 활동과 가정지향적 활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 간의 유대가 증진되고 가정생활의 질 또한 향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의례는 한 가족의 문화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가족구성원을 결속시키며 문화적 가족정체감,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유지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규칙적이고 안정된 가족의례의 절차는 다음의 가족생활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가족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능도 하므로 가족의례는 가족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4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21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기혼남성 37.5%, 기혼여성 62.5%이고, 결혼생활 중 96.3%, 이혼 3.2%, 사별 0.5% 순이었고, 연령은 40~45세 미만 40.7%, 30~40세 미만 35.2%, 30세 미만 5.1%, 50세 이상 19%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대졸이상 64.4%, 고졸이하 18.5%, 전문대졸 17.1% 순이었고, 자녀수는 2명이 56.9%로 제일 많았고, 1명 23.6%, 자녀가 없는 경우 12.5%, 3명이상 6.9% 순이었다. 평균소득은 501만원 이상 57.9%, 301~400만원 16.7%, 401~500만원 12.5%, 200만원 이하 6% 순이었다. 여성 연구대상자의 직업은 전문기술직 34.7%, 사무직 17.6%, 판매 및 서비스직 16.2%, 전업주부나 무직 14% 순이었고, 남성 연구대상자의 직업은 사무직 53.1%, 전문기술직 23.5%, 경영관리직 6.2%, 생산기능직 4.9% 순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16)

구분	내용	빈도(%)	
성별	남	81(37.5)	
	여	135(62.5)	
결혼상태	결혼	208(96.3)	
	이혼	7(3.2)	
	사별	1(0.5)	
연령	30세 미만	11(5.1)	
	30~40세 미만	76(35.2)	
	40~50세 미만	88(40.7)	
	50세 이상	41(19.0)	
학력	고졸 이하	40(18.5)	
	전문대 졸	37(17.1)	
	대졸 이상	139(64.4)	
자녀 수	없음	27(12.5)	
	1명	51(23.6)	
	2명	123(56.9)	
	3명 이상	15(6.9)	
소득	200만원 이하	13(6.0)	
	201~300만원 이하	15(6.9)	
	301~400만원 이하	36(16.7)	
	401~500만원 이하	27(12.5)	
	501만원 이상	125(57.9)	
직업	여성대상자	전업주부/무직	19(14.0)
		생산/기능직	1(0.7)
		단순노무직	0(0.0)
		판매/서비스직	22(16.2)
		소규모 자영업	7(5.1)
		사무직	24(17.6)
		전문기술직	47(34.7)
	경영관리직	1(0.7)	
	남성대상자	전문직	9(6.6)
		무응답	6(4.4)
		전업주부/무직	2(2.5)
		생산/기능직	4(4.9)
		단순노무직	1(1.2)
		판매/서비스직	1(1.2)
		소규모 자영업	1(1.2)
		사무직	43(53.1)
		전문기술직	19(23.5)
경영관리직		5(6.2)	
전문직	3(3.7)		
무응답	2(2.5)		

2. 측정도구

2.1 가족의례 척도

가족의례 척도는 Fiese[43]의 가족의례 질문지(Family Rituals Questionnaire : FRQ)를 수정·번역하여 사용한 최혜정[4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저녁식사의례, 주말여가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생일의례, 명절의례의 5개 종류로 각 6문항씩 총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례의 실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가족식사의례 .82, 주말여가의례 .89, 가족휴가의례 .90, 가족생일의례 .93, 명절의례 .86이었다.

2.2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주[29]의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 간의 유대(10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및 수행능력(6문항),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의 4개 하위 영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0, 가족원간의 유대 .92, 가족의 문제해결 및 수행능력 .90,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 .86이었다.

2.3 가족의례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

최혜정[44]이 사용한 가족의례 주요활동과 갈등요인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의례 주요활동은 가족의례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선호하는 가족식사의례, 가족주말여가의례, 생일의례, 결혼기념일의례는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갈등요인은 각 가족의례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족의례의 주요활동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족의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의례의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

가족식사의례의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은 [표 2]와 같다. 기혼남성의 경우 무응답이 존재한다. 기혼여성과 남성 모두 주요활동으로는 ‘집에서 직접요리’가 70.6%,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혼여성과 남성의 ‘외식’이 22.8%, 13.6% 순이었다. 갈등요인은 기혼여성과 남성 모두 ‘일이 너무 바빠서’ 25.7%, 2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혼여성은 ‘가족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19.9%, ‘직장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아서’ 17.6%, ‘가족과 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 10.3% 순이었다. 기혼남성은 ‘직장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아서’ 21%, ‘가족과 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 16% 순이었다.

표 2. 가족식사의례의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

구분	내용	빈도(%)	
		기혼여성	기혼남성
주요 활동	외식	31(22.8)	11(13.6)
	집에서 배달음식주문	8(5.9)	6(7.4)
	집에서 직접요리	96(70.6)	30(37.0)
	기타	1(0.7)	34(42.0)
갈등 요인	일이 너무 바빠서	35(25.7)	24(29.6)
	직장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아서	24(17.6)	17(21.0)
	가족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27(19.9)	7(8.6)
	자녀 학업 등의 이유로	12(8.8)	5(6.2)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	14(10.3)	13(16.0)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2(1.5)	3(3.7)
	기타	22(16.1)	12(14.8)

가족주말여가의례의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은 [표 3]과 같다. 가족주말여가의례의 주요활동은 기혼여성과 남성 모두 ‘근교나들이’ 26.5%, 23.5%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기혼여성은 ‘외식하기’와 ‘종교생활하기’가 17.6%, ‘문화생활하기’ 10.3% 순이었다. 기혼남성은 ‘외식하기’ 18.5%, ‘쇼핑 및 장보기’ 13.6%, ‘문화생활하기’와 ‘스포츠생활하기’ 12.3% 순이었다. 그리고 가족주말여가의례의 갈등요인은 기혼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 32.4%, 39.5%, ‘자녀공부 및 직장일로 바빠서’ 32.4%, 23.5%, ‘몸이 피곤해서’ 14%, 8.6% 순이었다.

표 3. 가족주말여가의례의 주요활동과 갈등요인

구분	내용	빈도(%)	
		기혼여성	기혼남성
주요 활동	근교나들이	36(26.5)	19(23.5)
	공원/놀이동산 가기	4(2.9)	4(4.9)
	외식하기	24(17.6)	15(18.5)
	스포츠활동하기	12(8.8)	10(12.3)
	문화생활하기	14(10.3)	10(12.3)
	종교생활하기	24(17.6)	5(6.2)
	부모님댁 방문하기	8(5.9)	5(6.2)
	가족봉사활동하기	1(0.7)	2(2.5)
	쇼핑/장보기	12(8.8)	11(13.6)
	기타	1(0.7)	0(0.0)
갈등 요인	자녀공부 및 직장일로 바빠서	44(32.4)	19(23.5)
	몸이 피곤해서	19(14.0)	7(8.6)
	경제적 부담때문에	3(2.2)	4(4.9)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2(1.5)	3(3.7)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	44(32.4)	32(39.5)
	평소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2(1.5)	1(1.2)
	여가활동 중에 자주 갈등이 발생해서	3(2.2)	0(0.0)
	기타	19(14.0)	15(18.5)

가족휴가의례의 갈등요인은 [표 4]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휴가와 가족여가의 경계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가족휴가의 주요활동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가족휴가의례의 갈등요인은 기혼여성과 기혼남성 모두 ‘가족 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가 34.6%, 39.5%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 공부 및 직장일로 바빠서’ 32.4%, 23.5%, ‘경제적 부담 때문에’ 5.9%, 6.2% 순이었다.

표 4. 가족휴가의례의 갈등요인

구분	내용	빈도(%)	
		기혼여성	기혼남성
갈등 요인	자녀공부 및 직장일로 바빠서	44(32.4)	19(23.5)
	몸이 피곤해서	6(4.4)	1(1.2)
	경제적 부담때문에	8(5.9)	5(6.2)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1(0.7)	2(2.5)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	47(34.6)	32(39.5)
	평소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3(2.2)	2(2.5)
	여가활동 중에 자주 갈등이 발생해서	2(1.5)	0(0.0)
	기타	25(18.4)	20(24.7)

가족생일의례의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은 [표 5]와 같다. 가족생일의례는 본인생일에 대한 응답이고 주요활동은 복수응답을 요구하였다. 가족생일의례의 주요활동은 기혼여성과 남성 모두 ‘케익 준비하기’가 제일 많

왔고, 다음으로 ‘가족외식하기’, ‘꽃이나 선물주기’, ‘생일상 차리기’, ‘애정표현하기’, ‘카드나 편지쓰기’ 순이었다. 갈등요인으로는 기혼여성의 경우 ‘내 생일을 가족이 잊어버려서’ 14.7%, ‘내가 원하는 축하방식이 아니어서’ 11%,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 8.1% 순이었고, 기혼남성의 경우 ‘내 생일을 가족이 잊어버려서’ 7.4%,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 4.9% 순이었다.

표 5. 가족생일의례의 주요활동과 갈등요인

구분	내용	빈도(%)	
		기혼여성	기혼남성
주요 활동	챙기지 않음	11(8.1)	14(17.3)
	케익	95(69.9)	48(59.3)
	꽃이나 선물주기	65(47.8)	24(29.6)
	애정표현하기	40(29.4)	15(18.5)
	카드나 편지쓰기	31(22.8)	19(23.5)
	가족외식하기	83(61.0)	38(46.9)
	깜짝파티하기	7(5.1)	3(3.7)
	생일상 차리기	40(29.4)	25(30.9)
	친구 초대하기	6(4.4)	2(2.5)
	용돈주기	27(19.9)	10(12.3)
	여행가기	10(7.4)	4(4.9)
기타	3(2.2)	0(0.0)	
갈등요인	내 생일을 가족이 잊어버려서	20(14.7)	6(7.4)
	생일 이벤트에 가족이 약속을 어겨서	5(3.7)	1(1.2)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	11(8.1)	4(4.9)
	내가 원하는 축하방식이 아니어서	15(11.0)	0(0.0)
	나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9(6.6)	1(1.2)
	기타	76(55.9)	69(85.2)

결혼기념일의례의 주요활동 및 갈등요인은 [표 6]과 같다. 결혼기념일의례 주요활동은 복수응답을 요구하였다. 결혼기념일의례의 주요활동은 기혼여성의 경우 ‘외식하기’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꽃이나 선물주기’, ‘애정표현하기’, ‘케익 준비하기’, ‘문화생활하기’ 순이었고, 기혼남성의 경우 ‘꽃이나 선물주기’, ‘외식하기’, ‘애정표현하기’, ‘케익 준비하기’, ‘여행가기’ 순이었다. 갈등요인은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 14.7%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 9.6%, ‘내가 원하는 축하방식이 아니어서’ 8.1% 순이었다. 기혼남성의 경우 ‘내가 원하는 축하방식이 아니어서’가 9.9%, ‘배우자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와 ‘형식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가 각각 6.2% 순이었다.

표 6. 결혼기념일의례의 주요활동과 갈등요인

구분	내용	빈도(%)	
		기혼여성	기혼남성
주요 활동	챙기지 않음	14(10.3)	5(6.2)
	케익	39(28.7)	20(24.7)
	꽃이나 선물주기	59(43.4)	36(44.4)
	애정표현(말, 포옹 등)	41(30.1)	22(27.2)
	카드나 편지쓰기	21(15.4)	11(13.6)
	외식하기	75(55.1)	35(43.2)
	깜짝파티하기	9(6.6)	5(6.2)
	문화생활하기	24(17.6)	10(12.3)
	용돈	21(15.4)	14(17.3)
	여행	21(15.4)	17(21.0)
	기타	1(0.7)	1(1.2)
갈등요인	배우자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	20(14.7)	5(6.2)
	배우자가 결혼기념일 이벤트에 약속을 어겨서	8(5.9)	1(1.2)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	13(9.6)	5(6.2)
	내가 원하는 축하방식이 아니어서	11(8.1)	8(9.9)
	나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9(6.6)	0(0.0)
	기타	75(55.1)	62(76.5)

명절의례의 갈등요인은 [표 7]과 같이 복수응답을 요구하였다. 명절의례의 갈등요인은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가 제일 많았고, ‘육체적 피로감’, ‘가사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순이었다. 그리고 기혼남성의 경우 ‘친척들과의 인간관계 문제’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육체적 피로감’과 ‘경제적 지출 부담이 커서’ 순이었다.

표 7. 명절의례의 갈등요인

구분	내용	빈도(%)	
		기혼여성	기혼남성
갈등요인	배우자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28(20.6)	1(0.5)
	가사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25(18.4)	13(6.0)
	육체적 피로감때문에	26(19.1)	21(9.7)
	경제적 지출부담이 커서	12(8.8)	21(9.7)
	시간 부족때문에	2(1.5)	15(6.9)
	친척들과의 인간관계 문제때문에	11(8.1)	36(16.7)
	배우자가 무조건 자기 식구편을 들어서	0(0.0)	13(6.0)
	배우자가 친가 또는 처가에 가려고 해서	1(0.7)	13(6.0)
	기타	31(22.8)	83(38.4)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가족의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표 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례

구분	N	가족식사의례			가족여가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생일의례			가족명절의례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성별	남	81	2.94	.46	.18	2.92	.61	.04	3.05	.54	.01	3.14	.56	.97	3.24	.46	2.47
	여	135	2.97	.55		2.93	.58		3.05	.59		3.22	.60		3.13	.55	
연령	30세미만	11	3.59	.46	b	3.29	.71	b	3.12	.93	2.44	3.56	.59	b	3.47	.41	1.67
	30~40세미만	76	2.98	.52	a	3.05	.60	b	3.15	.59		3.25	.58	ab	3.13	.54	
	40~50세미만	88	2.91	.46	a	2.94	.52	ab	3.05	.52		3.19	.57	ab	3.14	.54	
	50세이상	41	2.86	.51	a	2.59	.57	a	2.85	.51		3.02	.58	a	3.23	.46	
학력	고졸이하	40	2.89	.53	.45	2.81	.61	1.72	2.97	.60	3.42	3.18	.59	.50	3.23	.50	.33
	전문대졸	37	2.95	.42		2.85	.64		2.86	.59		3.11	.67		3.18	.60	
	대졸이상	139	2.98	.53		2.98	.57		3.12	.56		3.22	.56		3.15	.51	
자녀수	없음	27	3.09	.59	1.62	2.91	.81	1.76	3.04	.71	.60	3.16	.70	.11	3.18	.50	.14
	1명	51	3.03	.53		3.03	.47		3.12	.53		3.23	.55		3.20	.55	
	2명	123	2.92	.49		2.92	.58		3.04	.55		3.21	.55		3.16	.51	
	3명이상	15	2.81	.50		2.63	.62		2.91	.64		2.97	.75		3.11	.53	
평균소득	300만원이하	28	2.96	.60	4.9	2.90	.67	.86	2.92	.57	1.69	3.08	.61	1.71	3.14	.52	1.5
	301~400만원	36	2.97	.43		2.79	.57		2.91	.44		3.06	.51		3.08	.43	
	401~500만원	27	3.06	.45		2.99	.60		3.10	.54		3.32	.59		3.35	.46	
	500만원이상	125	2.93	.53		2.96	.58		3.11	.61		3.23	.59		3.17	.55	

*p<.05, **p<.01, ***p<.001

결과는 [표 8] 같이 연령에 따라 가족의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세미만 집단이 30세 이상 집단보다 가족식사의례를 더 많이 하였고, 40세 미만 집단이 50세 이상 집단보다 가족여가의례를 더 많이 하였으며, 30세 미만 집단이 50세 이상 집단보다 가족생일의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 같이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가족의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가족간 의사소통이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다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구분	N	가족 간 의사소통			가족 간 유대			가족의 문제해결 및 수행능력			가족 간의 가치체계공유			
		M	SD	F	M	SD	F	M	SD	F	M	SD	F	
성별	남	81	3.79	.66	.07	3.88	.69	.14	3.94	.67	.34	3.48	.67	.23
	여	135	3.77	.70		3.85	.66		3.88	.73		3.43	.75	
연령	30세미만	11	4.20	.61	2.01	4.29	.63	2.34	4.22	.72	1.16	3.48	.70	.52
	30~40세미만	76	3.84	.65		3.92	.67		3.95	.63		3.53	.72	
	40~50세미만	88	3.70	.73		3.81	.67		3.84	.78		3.40	.74	
	50세이상	41	3.78	.65		3.74	.66		3.86	.70		3.42	.72	
학력	고졸이하	40	3.72	.71	1.31	3.80	.64	1.32	3.96	.79	.40	3.45	.71	.42
	전문대졸	37	3.64	.73		3.72	.69		3.82	.69		3.36	.80	
	대졸이상	139	3.83	.67		3.91	.67		3.91	.70		3.48	.71	
자녀수	없음	27	3.75	.78	1.46	3.78	.71	2.69	3.84	.69	1.83	3.40	.76	.44
	1명	51	3.93	.65		4.07	.63		4.07	.68		3.48	.70	
	2명	123	3.75	.67		3.82	.65		3.87	.71		3.48	.73	
	3명이상	15	3.56	.79		3.62	.77		3.64	.80		3.27	.75	
평균소득	300만원이하	28	3.56	.84	1.12	3.63	.73	1.38	3.74	.74	1.05	3.36	.67	1.06
	301~400만원	36	3.81	.66		3.87	.68		3.84	.75		3.34	.72	
	401~500만원	27	3.85	.66		3.98	.59		4.07	.51		3.36	.70	
	500만원이상	125	3.80	.67		3.88	.67		3.92	.73		3.53	.75	

*p<.05, **p<.01, ***p<.001

표 10. 가족의례의 종류, 가족건강성 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가족식사의례	-								
2. 가족여가의례	.62**	-							
3. 가족휴가의례	.45**	.78**	-						
4. 가족생일의례	.61**	.64**	.57**	-					
5. 가족명절의례	.51**	.38**	.37**	.49**	-				
6. 가족간 의사소통	.58**	.54**	.50**	.54**	.44**	-			
7. 가족 간 유대	.63**	.58**	.52**	.56**	.43**	.91**	-		
8. 가족의 문제 해결 및 수행 능력	.49**	.46**	.44**	.50**	.42**	.85**	.88**	-	
9. 가족의 가치 체계 공유	.53**	.51**	.50**	.50**	.44**	.83**	.84**	.78**	-
M	2.96	2.93	3.05	3.19	3.17	3.78	3.86	3.90	3.45
SD	.51	.59	.57	.58	.52	.69	.67	.71	.73

*p<.05, **p<.01, ***p<.001

가족의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89이므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는 독립적이다. 독립변수간 VIF지수는 1.00~2.01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과 같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생일의례 순으로 영향을 주며, 가족식사의례는 가족 간의 유대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설명력은 40%이다. 가족휴가의례가 추가되어 47%를 설명하였고, 가족생일의례가 추가되어 48%를 설명하였다.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생일의례의 실행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유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Durbin-Watson 지수가 1.85이고, VIF 지수는 1.00~2.02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와 같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생일의례,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명절의례 순으로 영향을 주며, 가족생일의례는 가족의 문제해결 및 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설명력은 25%이다. 가족식사의례가 추가되어 30%를 설명하였고, 가족휴가의례가 추가되어 33%를, 가족명절의례가 추가되어 34%를 설명하였다. 가족생일의례,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명절의례의 실행이 높을수록 가족의 문제해결 및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Durbin-Watson 지수가 1.89이고, VIF 지수는 1.00~2.63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과

같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여가의례, 가족명절의례,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 순으로 영향을 주며, 가족여가의례는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설명력은 29%이다. 가족명절의례가 추가되어 36%를 설명하였고, 가족식사의례가 추가되어 38%를, 가족휴가의례가 추가되어 39%를 설명하였다. 가족여가의례, 가족명절의례,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의 실행이 높을수록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가족의례가 가족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가족간의 유대				
	B	β	R ²	ΔR^2	F
상수	1.42				
가족식사의례	.82	.63***	.40		140.61***
가족휴가의례	.35	.30***	.47	.07	93.02***
가족생일의례	.18	.16*	.48	.01	65.09***

*p<.05, ***p<.001

표 12. 가족의례가 가족의 문제해결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문제해결 및 수행능력				
	B	β	R ²	ΔR^2	F
상수	1.96				
가족생일의례	.61	.50***	.25		70.90***
가족식사의례	.41	.30***	.30	.06	46.45***
가족휴가의례	.24	.20**	.33	.03	34.60***
가족명절의례	.20	.15*	.34	.01	27.55***

*p<.05, **p<.01, ***p<.001

표 13. 가족의례가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				
	B	β	R ²	ΔR^2	F
상수	1.51				
가족여가의례	.66	.54***	.29		88.65***
가족명절의례	.38	.27**	.36	.06	58.94***
가족식사의례	.31	.22**	.38	.03	43.69***
가족휴가의례	.22	.18*	.39	.01	34.29***

*p<.0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족식사의례의 주요활동은 남녀 모두 ‘집에서 직접 요리’, ‘외식하기’ 순이었다. 갈등요인은 남녀 모두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직장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아서’, ‘가족과 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져서’ 순이었다. 이는 가족식사의례중 ‘집에서 직접 요리’를 가장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45]와 일치한다. 평소에 주로 이뤄지는 의례이므로 연구대상자의 71%정도가 가정에서 직접 가족들을 위한 식사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생활활동중 시간적 양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적 활동과 식사활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46], 상대적으로 다른 의례에 비해 가족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가족원 각자가 자신의 시간을 조율하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식사요일이나 가족식사데이’를 만드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가족주말여가의례의 주요활동은 남녀 모두 ‘근교나들이’, ‘외식하기’ 순이었다. 종교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우 주말동안 종교생활을 하나의 여가로 실행하는데 반해, 기혼남성들의 경우 개인적인 스포츠 활동을 여가생활로 꼽아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주말여가의례와 가족휴가의례의 갈등요인은 모두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져서’, ‘자녀공부 및 직장일로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순이었다. 가족주말여가의례에 대한 결과는 최혜정과 김득성[4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가와 휴가활동은 개인적인 시간 할애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면 가족원들이 좀 더 만족하고 심신의 휴식을 위한 의례의 시간이 될 것이다.

가족생일의례의 주요활동은 남녀 모두 ‘케익 준비하기’, ‘가족외식하기’, ‘꽃이나 선물주기’, ‘생일상 차리기’ 순이었다. 이는 최혜정과 김득성[4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혼남성은 기혼여성보다 ‘애정표현하기’를 적게 하는 반면 ‘카드나 편지쓰기’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인 표현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요인은 남녀 모두 ‘내 생일을 가족이 잊어버려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혼여성은 ‘내가 원하는 축하방

식이 아니어서’, 기혼남성은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 순이었다. 이는 최혜정과 김득성[4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생일의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있고 특별한 의례중 하나이므로 가족원들이 챙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자 자신이 원하는 생일의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알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기념일의례의 주요활동은 남녀 모두 ‘외식하기’, ‘꽃이나 선물주기’, ‘애정표현하기’, ‘케익 준비하기’ 순이었다. 갈등요인은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 순이었고 기혼남성의 경우 ‘내가 원하는 축하방식이 아니어서’, ‘배우자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와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 순이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경우가 ‘결혼기념일을 챙기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혼남성보다 높았다. 결혼기념일의례는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의례이므로 의례날짜를 확인하고 서로가 원하는 축하방식으로써 의미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명절의례의 갈등요인은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육체적 피로감’, ‘가사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순이었고 기혼남성의 경우 ‘친척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육체적 피로감’과 ‘경제적 지출 부담이 커서’ 순이었다. 이는 최혜정과 김득성[4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명절음식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기혼여성들의 육체적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가족원들이 좀 더 협조하고 이해하는 명절의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0세 미만 집단이 30세 이상 집단보다 가족식사의례를 더 많이 하였고 50세 이상 집단보다 가족생일의례를 더 많이 하였으며, 40세 미만 집단이 50세 이상 집단보다 가족여가의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서구화된 가정의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19], 20대가 가족여가를 많이 한다는 연구 [20], 30대의 주부가 남편과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47]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30세미만 집단일 경우 신혼 초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린 영유아기에 해당되므로 가족원들이 상대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이므로 가족식사의례와 가족생일의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40세 미만 집단일 경우 학령기 자녀들과 함께 야외활동과 같은 가족여가의례를 많이 하기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차가 없다는 연구[35][36],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38],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39]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 [1][35]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중 고소득자들이 많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주말여가의례의 빈도분석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기혼여성 2.2%, 기혼 남성 4.9%로 비교적 낮게 나온 것과도 관련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소득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가족의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 하위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생일의례의 실행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유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상호작용의 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원들의 작은 이야기들에서부터 공감 및 경청, 개방적 질문 등 가족원 간의 긍정적 소통이 강조되기 때문으로[48] 생각된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휴가를 계획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호작용이 촉진될 뿐 아니라 휴가의례 실행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 해소와 상호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가족생일의례는 가족원들 중 생일자가 의례

의 주인공이지만 함께 축하해주는 가족들이 마련한 자리이기에 다른 의례에 비하면 그 빈도가 낮을지라도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함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가족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가족원들과 함께 행해진다면 가족 내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기능하게 되어[49], 가족의 유대감과 친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원들 간의 유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식사활동을 빈번히 하고, 가족휴가를 함께 계획하여 실행하며, 가족원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의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생일의례,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명절의례의 실행이 높을수록 가족의 문제해결 및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가족들이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좀 더 긍정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간 단합을 보인다는 연구결과[50]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그리고 가족원들이 가족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가족원들이 함께하는 협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스스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가족응집력도 강화시키기 때문으로[51] 생각된다. 또한 다른 의례에 비해 가족식사의례와 가족명절의례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그 만큼 가족성원들 간의 역할분담도 커질 것이므로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족생일의례,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명절의례중 자신의 가족원들이 좀 더 선호하고 의례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가족원들의 문제해결력과 수행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여가의례, 가족명절의례,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의 실행이 높을수록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여가활동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각 가족내에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사회변화와 함께 각 세대별로 공유하는 가치기준 또한 달라 가치체계를 공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52]. 하지만 가족식사활동은 세대 간 문화전달 및 교육의 장이면서 동시에 가족원들의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53], 가족여가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는 점에서 [54]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가족명절의례를 통해 가족집단으로서의 가치공유뿐 아니라 친족과도 상호작용의 기회는 가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여가의례, 가족명절의례, 가족식사의례, 가족휴가의례를 통해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의례중 현대가족들에게 많이 행해지는 의례를 중심으로 설문응답을 요구하였다. 이때 명절의례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명절의례의 주요활동 즉 형식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체적인 주요활동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가장 전통적인 모습이지만 각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명절의례의 특징을 간과한 연구자의 실수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명절의례의 주요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전업주부의 경우 가족을 위한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고 가족의례를 위한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건일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정확히 알고자 연구대상자의 소득수준과 그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정도를 함께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가족원 수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원 수, 의례 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지출정도 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강희경,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pp.93-102, 2005.
 [2] 박지현, 김태현,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

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1호, pp.229-257, 2011.
 [3] 한상미, 가족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정체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 조희금, 김경신, 정민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이현아, 건강가족론, 신정출판사, 2010.
 [5] 통계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5.
 [6] J. M. Gottman, *The marriage clinic :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ew York : W. W. Norton, 1999.
 [7] 석영미, 이병준, “한국가족의 식사의례에서의 일상학습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제9권, 제2호, pp.123-142, 2014.
 [8] W. J. Doherty, *The intentional family : How to build family ties in our modern world*, MA: Addison-Welsey Publishing, 1997.
 [9] 이길표, *전통가례*, 서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10] 문옥표,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79권, 제77호, pp.153-180, 1997.
 [11] S. J. Bossard and S. E. Boll, “Ritual and Family Liv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14, No.4, pp.463-469, 1950.
 [12] 김필양, *새로운 가족학*, 신정출판사, 2004.
 [13] S. J. Wolin and L. A. Bennett, “Family rituals,” *Family Process*, Vol.23, pp.401-420, 1984.
 [14] B. H. Fiese and C. A. Kline, “Development of the family ritual questionnaire : Initial reliability and validation stud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6, pp.290-299, 1993.
 [15] K. Leon and D. B. Jacobvitz,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family ritual quality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amily Process*, Vol.42, pp.419-432, 2003.
 [16] 정옥희, *도시정부의 가족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과천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2010.
- [17] 김필숙, 김태현,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족관계 적응 : 30~4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3호, pp.1-31, 2004.
- [18] C. Crepo, I. N. Davide, M. E. Costa, and G. J. Fletcher, Family rituals in married couples : Links with attachment, relationship quality, and closeness, *Personal Relationship*, Vol.15, pp.191-203, 2008.
- [19] 옥선화, 신기영,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 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8호, pp.29-51, 2000.
- [20] 정옥희, 홍혜영,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치료연구, 제3권, 제2호, pp.51-67, 2011.
- [21] 김준희, 한재문, 이예승,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실태와 여가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27권, pp.203-221, 2004.
- [22] 최소영, *가족 여가 참여경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3] 이민아,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연구: 중학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4] D. H. Olson and J. Defrain, *Marriage and families :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4th(Ed.). Boston: McGraw-Hill, 2003.
- [25] 권승숙,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6] B. L. Bloom, “A factor analysis of self 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Vol.24, pp.225-239, 1985.
- [27] 유영주,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2호, pp.119-151, 1994.
- [28] 유계숙,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2호, pp.25-42, 2004.
- [29] 어은주, 유영주,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45-155, 1995.
- [30] 한영숙,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 문제간의 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1] V. Satir, *Family therapy : A guide to therapy and technique*,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67.
- [32] N. Stinnett and J. DeFrain,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 Little Brown, 1985.
- [33] 송정아, “한국 도시 부부의 건강한 결혼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69-78, 1995.
- [34] 이정숙, “기혼남녀의 가정건강성과 건강가정기본법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4호, pp.579-597, 2007.
- [35] 양순미,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6] 최정혜,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3호, pp.11-26, 2005.
- [37] 양순미, 유영주, “부모와 자녀세대가 인지한 농촌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의 특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5권, 제1호, pp.67-91, 2000.
- [38] 강수정, 최정혜, “농촌 주부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2호, pp.71-85, 2010.
- [39] 어은주,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40] 어은주, 유영주,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제4호, pp.269-285, 1997.
- [41] 정현숙, 유계숙, *가족관계*, 신경출판사, 2006.
- [42] 이기숙, 고정자, 권희경, 김득성, 김은경, 김향은, 옥경희, *현대가족관계론*, 파란마음출판사, 2009.
- [43] B. H. Fiese, “Dimensions of family rituals

across two generations : Relation to adolescent identity," *Family Process*, Vol.31, pp.151-162, 1992.

[44] 최혜정, *가족의례와 아내의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5] 최혜정, 김득성, *가족의례와 아내의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6호, pp.111-124, 2009.

[46] A. J. Davery and B. Paolucci, *Family Interaction : A study of shared time and activities*, *Family Relations*, Vol.29, No.1, pp.43-50, 1980.

[47] 안동선, 이정우, "도시주부의 여가유형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 pp.55-65, 1983.

[48] M. Weinstein, *The Surprising Power of Family Meals: How Eating Together Makes Us Smarter, Stronger, Healthier and Happier*, Steerforth, 2006

[49] H. B. Fiese, J. T. Tomcho, M. Douglas, and K. Josephs, "A review of 50 years of research on naturally occurring family routines and rituals : Cause for Celebr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6, No.4, pp.381-390, 2002.

[50] 김미엽, *주부무용참여의 재미요인이 가족건강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1] 김진원, 엄명용, "가족식사활동이 기혼여성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44권, pp.81-111, 2014.

[52] 이선미, "성인남녀의 가족건강성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제5호, pp.129-142, 2011.

[53] 김의숙, 이기영, 이연숙, 조희금, 한영선, 김하늬, 김주희, 윤용옥,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분석: 2010년도 통계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통계청, 2010.

[54] 천혜정, "가족 여가 참여동기 및 가족 여가활동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8권, 제2호, pp.1-13, 2004.

저 자 소 개

배 재 현(Jae-Hyun Bae)

정회원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이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발달, 유아교육, 가족학